



4면

'변화·혁신 함께 노력하자'

# 전주매일

2022년 7월 6일 수요일 (음 6월 8일) 제305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17가지 준수사항 이행을”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 올해부터 제도 개편 시행도, 공익기능 증진 의무교육 이수 위한 안내·홍보 농지 현장점검·준수 이행 등 확인 후 11월에 지급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해 지켜야 하는 17가지 준수사항 이행을 당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은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올해에는 기존의 준수사항에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이 추가됐으며, 올해부터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에서 5~10%씩(최대 100%) 감액된다. 전북도 및 시·군에서는 17가지 준수사항 중 하나인 공익기능 증진 의무교육 이수를 위해 안내 및 홍보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정규교육(대면, 온라인) 외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 교육(유일URL) 접속)과 70세 이상 고령농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전화교육이 운영되고 있다. 6월 말 기준 도내 교육 이수율은

53.78%로 정규교육은 1,553명, 간편교육 3만9,898명, 전화교육은 3만8,686명이 이수한 상태다. 준수사항 이행점검은 9월 30일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이행 점검 완료일을 고려해 올해 의무교육 이수는 9월 15일 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도는 7월부터 9월까지 농지 현장점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한 후 11월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민 소득안정에 기여가 높은 직불금인 만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감액이 적용되는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여 감액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농촌 봉사활동 하러 갑니다”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5일 대학에서 열린 2022년도 하계 농촌 봉사활동 발대식을 마치고 짐을 나르며 환하게 웃고 있다. <관련기사 4면>

### 동물병원서 수술 등 중대진료시

## ‘소유자에 사전 설명·서면 동의’ 의무화

개정 수의사법 시행...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의료분쟁 등 해소 전망... 도, 법 개정내용 지속 홍보

앞으로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할 때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등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진료 선택권 보장과 동물 의료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이 개정돼 5월부터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할 경우 동물 소유자에게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수술 등 중대진료’에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

에 관한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술 등이 해당한다. 다만, 설명·동의 절차로 인해 수술이 지연되면 생명이 위협되거나 중대한 장애가 남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일단 수술을 실시하고 사후에 설명·동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1차 위반 30만원 → 2차 위반 60만원 → 3차 위반 9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그 밖에 내년 1월 5일부터는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수의사 2

인 이상 동물병원 진찰 등 진료비용 고지,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결과 공개 등이 시행된다. 이에 전북도는 향후 동물 진료 시 생길 수 있는 의료분쟁 등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수의사법 개정내용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수의사법 개정·시행에 따라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 진료선택권 등이 보장되고, 동물 의료 서비스도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수기자

## 전북도, 공직기강 선제 강화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택시기사 폭언 등과 관련 김관영 지사, 도 감사관에 공직기강 대책 등 주문



들은 도민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고 민생경제를 살릴 구원투수가 되어야 한다”며, “우리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다 실

김관영 전북도지사(사진)는 5일 최근 발생한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택시기사 폭언 등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전북도 감사관에게 공직기강 대책과 선제적 실행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일부 공직자의

일탈행위로 도민들을 실망시킨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선제적으로 공직기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김관영 지사는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도민 앞에 더 겸손한 책무가 있다. 폭언 속에서 각급 공무원

인할 수 있겠지만, 그 이외의 경우는 실수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감사관실은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택시기사 폭언에 대한 공직감찰에 즉시 착수했다. /김경수 기자

## 오늘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 실시

도내 96개교 1만6963명 응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6일 시행되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도내에서는 96개교 1만6,963명이 응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결과는 오는 20일부터 안내하며, 영역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

급 등을 산출한 학교별 성적일람표와 개인별 성적표가 제공된다. 특히 가정학습과 자가격리 등으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문체부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학습용으로 활용을 희망하는 학생은 도교육청 진로진학센터(www.je.go.kr/jmro) 또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온라

인 시스템(www.gsare.kr.)에 접속해 ‘학부교, 교사, 학생’ 문제지 자료실’에서 문제지를 내려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수험생들이 자신의 수능 준비에 대한 중간점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실전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시험 진행요령과 교시별 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장수군**

#다섯가지맛

#맛있다!

오! 아름다운 자여!

# 장수오미자

#오미자와인

#장수물

#오미자주

www.장수물.com

**장수물**